국내
긴급시황

2026.3.3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증시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

이란 전쟁 확전 우려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장중 이란의 사우디 미국 대사관 공격 소식에 국내 증시 하락세 심화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 심화 우려에 코스피가 6%, 코스닥이 3%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연휴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. 이에 이란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. 전일 S&P 500은 0.04%, NASDAQ은 0.36% 올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48% 상승하는 등 미국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에 따라 장 초반 코스피가 제한적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, 장중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. 특히 외국인은 14시 30분 기준 코스피를 약 5.5조원(KRX, NXT 합산) 순매도하며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
-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연초부터 2월까지 코스피는 48%, 코스닥은 29% 오르며 여타 글로벌 증시의 성과를 압도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이 강세를 이끌며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. 둘째, 한국 수입 원유의 약 70%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.
- 이란 사태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, 당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이 전면전으로의 확대보다는 이란 내부의 분열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이란이 쉽게 항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유의 깊게 봐야할 것은 유가입니다. 장기전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 상승이 물가 압박과 금리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코스피 5,900pt 기준 12개월 선행 P/E는 10.1배, P/B는 1.64배(LSEG 기준)입니다. 현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ROE 11% 수준이 지속된다면,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/B 1.55배인 5,500pt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단기 불확실성은 불가피하지만, 주가 하락을 주도주 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